

보통 사람 눈높이에 맞춰 쓴
법·재판에 관한 인문교양서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지음

여기 법에 관한 이색적인 사례가 있다. 1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동물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강아지를 전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일까?

서울의 한 5층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세입자들과 건물주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수사결과 화재가 세입자 중 한 사람의 가계에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됐다. 화재의 원인으로 콘센트 내부에 쌓인 먼지로 인한 누전이었다. 해당 세입자에게는 콘센트 내부 먼지까지 청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법률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사소한 일에도 계약 관계가 숨어 있다.

현직 판사가 공부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허승 판사가 펴낸 '사회, 법정에 서다'는 법학의 핵심을

짜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은 법을 주제로 한 인문교양서"라며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양측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의 지적회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에는 논리적으로 고만하고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됐다.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 전통적인 개념부터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아우른다.

1부 '법과 재판 사이'에서는 법과 재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부 '법과 자유 사이'에서는 손해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문제로 대두된 악성 게시물 소송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의 범위와 포털 사이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3부와 4부는 '법과 정의의 사이'와 '법과 권력 사이'로 각각 쌍방과실문제, 저작권의 이용과 제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5부 '법과 경제 사이'는 근로계약과 해고의 요건, 파업과 업무 방해죄, 경업(영업상 경쟁행) 금지 의무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살펴본다.

<공리·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자는 전쟁에서..

마스카와 도시히데 지음
김범수 옮김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한 핵 도발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이제 뉴욕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과 핵도발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불행하게도 20세기 과학은 권력과 전쟁에 부역했다. 지금까지 인류는 두 번의 세계전쟁을 치렀고,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눈부신 과학을 이루기도 했다.

특히 1차 대전은 과학의 실현장이라 해도 될 만큼 온갖 살상무기들이 등장했다. 흔히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군사과학에 힘을 보태는 과학자들을 비호하는 말이다. 과연 이대로 국력증강이라



20세기 과학은 권력과 전쟁에 부역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과학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선물했지만 전쟁에 동원돼 많은 이들의 희생을 불러오기도 했다.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의 장면.

는 명복아래 정치가 좌지우지 하는 과학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까.

2008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고야대학 특별교수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발간한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는 '노벨상 과학의 오용'과 '전쟁에 부역한 과학'을 반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을 관통하는 기조는 '과학자이기 전에 시민이 되자'는 내용이다. 저자는 '정경유착', '방산비리', '논문조작', '원전문

제' 등 고삐 풀린 현대 과학기술 행보에 일침을 가한다. 즉 저자는 전쟁에 동원된 과학기술과 과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학자들이 자성하지 않으면 전쟁의 무기로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이용된 독가스 기술을 개발한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개발한 독가스들은 후일 히틀러 손에 들어가 끔찍한 방법으로 사용됐다.

제2차 대전을 연합국 승리로 이끈 '맨해튼 프로젝트'는 4년간 총 20억 달러의 예산과 과학자 3000명이 동원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원폭 두기가 일본에 투하됐다.

전 세계가 파괴성을 목격했고, 이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기술이 전쟁에 오용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노력은 별무효였다. 베트남 전쟁에 또다시 과학자들이 동원된 것이다.

미국이 조직한 비밀 과학자 조직 제이슨(JASON)은 '어떻게 하면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베트남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지' 같은 기술을 군부에 제공했다.

한편 제2차 대전에서 사용된 핵무기 위력에 놀란 과학자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중심으로 모인 세계 석학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 동과 서, 양 진영 과학자들이 모여 핵무기로 인류가 입을 재앙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저자는 핵탄두 개수로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던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또한 원자력은 군사과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그의 바람은 '과학이 수천 년에 걸쳐 지혜를 쌓아온 것처럼 인류가 평화를 쫓는 발걸음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9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흑인 노예 탈출 비밀조직 '지하철도' 이야기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콜슨 화이트헤드 지음
황근하 옮김

폴리처상(2017), 전미도서상(2016), 엔드루카네기메달(2017), 아서크라크상(2017) 등 세계 유수의 상을 수상하고 아마존 올해의 책 1위(2016) 선정됐던 콜슨 화이트헤드의 장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발간됐다. 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철 읽은 도서로도 알려져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소설은 실존했던 흑인 노예 탈출 비밀조직 '지하철도'를 실제 '지하철도'로 상상해 쓴 이야기다. 한마디로 노예 소녀의 탈출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하철도'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이

전인 1980년대 남부의 노예들이 북부의 자유 주나 캐나다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점조직이다. 이에 반해 노예제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백인과 흑인들이 비밀리에 도망을 친 노예들에게 먹을 것과 은신처를 마련해주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역장', '기관사', '차장'으로 칭했고, 도망을 친 노예들을 '승객', 그들을 숨겨주는 이의 집을 '역'으로 부르는 등 실제 철도 용어를 은어로 쓰면서 1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다.

미국 지폐 20달러의 새 주인공 해리엇 터브먼이 바로 이 지하철도의 '차장'이었으며 그녀 역시 지하철도를 통해 남부를 탈출했다는 점에서 소설 속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전미도서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 나를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잘 쓰면 사람들이 얻는 게 있을 거라는 바람과 함께요." <은행나무·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철새들의 입 빌려 한반도 상황 풍자한 시집



파주에게

공규구 지음

현재의 한반도는 시계제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과 남한의 사드배치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장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 불안에 직면해 있다.

위안과 치유, 저항과 창조 시인으로 불리는 공규구가 신작 시집 '파주에게'를 펴냈다. 시인은 지난 86년 '동서문학상'으로 등단해 운동주변학대상(2009)과 현대비교문학상(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시인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빗대 철새들의 입을 빌려 "바보 정말 바보들"이라고 풍자한다. 이밖에 시집에는 '자화상', '흰빛을 언다', '열매는 왜 온근가', '나쁜 짓들의 목록' 등 모두 60여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파주, 너를 생각하니까/ 임진강변 군대 간 아들 면회하고 오던 길이 생각나는군/ 논바닥에서 모이를 줬던 철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나를 비웃듯 철책을 훌쩍 넘어가 버리던/ 그러더니 나를 놀리듯 철책선을 훌쩍 넘어오던 새떼들이..."

표제시 '파주에게'는 분단상황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시인의 서정적 주문이 담겨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천문학사·1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대 철학·신화·경전 통해 본 여성성 가치와 의미



다시, 페미니즘

이충현 지음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것일까? 혹시 페미니즘이 남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는 않을까? 페미니즘은 남녀 대립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야만 할까?'

'다시, 페미니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기존의 페미니즘 책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한다. 독자에게 위로를 전하거나 투쟁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공존과 조화를 말하는 책이다.

'싱글의 철학', '리더의 불편한 진실, 그리노믹스' 등을 쓴 저자 이충현은 이

책을 통해 수메르, 이집트, 그리스 등 고대 시대의 철학과 신화, 경전을 통해 여성성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살핀다.

가부장제를 낳은 고대 영적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나 여러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책의 초반은 페미니즘에 대한 글이라고 하기에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가부장제를 형성한 고대의 영적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고찰한다.

그리고 후반부에 세계를 남성 중심으로 해석한 고대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세계관을 재해석하여 여성성의 가치와 의미를 풍부하게 열어 놓는다. 더 나아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떠나, '인간' 그 자체의 조화롭고 자유로운 길을 페미니즘과 함께 모색한다.

<물병자리·1만3500원>

/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